

일본경제리뷰 No.18_07

< Special Issue >

조선업을 둘러싼 한중일의 경쟁과 대응

Contents

<Special Issue>	1
I. 한일경제동향	3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	6
2. 경제정책	11
3. 기업전략	14
III. KJCF&KJE News	18
IV. 이달의 추천자료	20
V. 한일경제지표	21



< Special Issue > 조선업을 둘러싼 한중일의 경쟁과 대응

□ 한중일간 조선업의 치열한 생존경쟁

- 한중일에서 세계생산의 90%를 점하는 조선업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 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(2018.7.14.), 한국기업들은 규모의 강점을 살려, 일부에서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도 받으면서 수주확대에 돌입하고 있음
 - 일본정부는 이같은 지원이 WTO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소를 검토
 - 중국은 대기업들간 통합으로 거대기업을 탄생시키고 있음

□ 세계시장 축소로 인한 설비과잉

- 조선업은 한마디로 세계시장의 축소로 설비과잉이 심각한 상태임
 -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 울산시, 1973년 개설된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는 9개의 선박용 도크를 가지고 있어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
 - 일본은 최대기업 이마바리(今治)조선의 마루가메(丸亀)공장이 3개의 선박용 도크를 가지고 있어 한일 간 차이는 압도적임
- 현대중공업은 그 생산능력을 살려 적재량 30만 톤의 초대형 탱커를 6개월에 10척을 건조할 수 있음
 -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기업들이 모방할 수 없는 납기의 유연성 때문에 고객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고 함
- 세계의 대형조선업체들은 동아시아에 집중, 일본기업들은 코스트 경쟁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유럽기업들의 점유율을 빼앗아 1950년대부터 국별 수위를 점하게 되었음
 - 그 후는 1990년대에 한국기업, 2000년대에 중국기업이 대두, 2010년대는 한중 어느 한쪽이 연간 수위를 점하게 됨
- 현재 조선시장은 설비과잉이 선명한 상태로 선박 건조량은 2003년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급증함
 - 그러나 2008년 리먼 금융위기 이후는 해운회사로부터의 수주가 급감, 2006년에 1억 3,188만 톤이었던 수주량이 2016년에는 1,884만 톤까지 급감

○ 각국의 수주잔량도 감소되고 있음. 일본 교통성에 의하면, 2015년에 2.2년분이었던 일본의 조선소 공사량은 2018년 3월에 2.4만 톤분까지 감소

- 한국은 2.7년분에서 1.7년분으로, 중국은 3.5년분에서 2.8년분으로 각각 감소함

□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일본기업의 점유율 급락

○ 이에 따라 당연히 가격경쟁도 치열해졌음. 현대중공업 등 거대설비를 가진 기업은 동형선을 다수 일괄적으로 수주하는 이른바 롯데 수주로 단가를 인하했음

- 추격할 수 없게 된 일본기업들은 2017년에 수주점유율이 7%로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한국기업과(43%)로 차이가 벌어짐

○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위기에 빠진 후, 정부계 산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 2017년도에 흑자로 전환함

- 대우 측은 지배주주인 산업은행이 손실을 피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, 한국정부가 고용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임

○ 이를 불공정경쟁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조선업계에서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져 일본정부도 제소 검토에 들어감

□ 중국의 거대기업 탄생, 한일에 위협요인으로

○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공통의 위협은 중국의 거대기업 탄생임

- 2017년 수주량이 세계의 35%에 달한 중국기업들도 과잉설비에 직면하여 6개의 도크를 가진 다이렌선박중공업이 2017년에 12척밖에 준공하지 않고 있음

- 그래서 중국정부는 산하에 다수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2대 국영기업, 중국선박중공업집단(CSIC)과 중국선박공업집단(CSSC)의 통합 방침을 결정함

○ 양 그룹 산하의 세계 대기업 3사의 건조량은 합계 638만톤(2017년)으로 현대중공업을 상회하고 있음

-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통합으로 거대기업을 탄생시켜 국제경쟁상 우위에 서도록 한 것은 철강이나 철도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수법임

□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한중일 정부의 절충

-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일은 정부 간 절충을 반복해왔음
 - 2018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의 지원을 둘러싸고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음
 - 그럼에도 최근 현저한 상황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각국 모두 조선업은 고용의 큰 받침대로 대담한 설비삭감에는 소극적임

□ 자력으로 돌파구 모색하는 일본기업

- 일본기업들은 자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
 - 가와사키중공업은 2017년 상선을 운영하는 사카이데(坂出)조선공장의 도크 2개 중, 1개를 폐쇄하는 대신, 중국의 합작기업에서 도크를 신설하기로 결정함
 - 미쓰이ES 조선도 중국과 필리핀에 조선소를 가진 쓰네이시(常石)조선과 제휴함
 - 인건비가 저렴하고 설비의 새로운 거점에 생산을 이전하면서 반전공세의 기회를 엿보고 있음

I. 한일 경제 동향

□ 무역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- 따라서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의존도는 4.7%, 수입의 대일의존도는 11.5%
 - 한편,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.2%
- '18.6월 對日무역적자는 1,842백만 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
- 對日수출은 2,602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2.9% 증가

- 산업기계 대신에 기초산업기계가 對日수출 상품에 포함된 가운데, 광물성연료의 對日수출 증가폭이 46.1%로 가장 큼
- 對日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철강제품이 -12.2%로 감소폭이 가장 큼 (한일경제지표 1 참조)
- 對日수입은 4,443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전월의 10.6% 감소에서 0.8% 증가로 반전
- 10대 對日수출 품목 중 산업기계의 對日수출 증가폭이 19.6%로 가장 큰 반면, 對日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가 -21.4%로 감소폭이 가장 큼

< 2018년 6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수출	2,528	15.8	2.0	2,602	10.7	2.9	15,243	15.4
對日수입	4,408	0.6	-10.6	4,443	-6.9	0.8	28,013	3.3
무역수지	-1,880	-14.5	-23.3	-1,842	-23.9	-2.0	-12,770	-8.1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'18.2분기 일본인 직접투자, 2분기 연속 증가
- '18.2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504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37.0% 증가
- 한편 '18.5월 일본인 對韓직접투자는 393억 엔으로 전기대비 24.4% 증가
- '18.5월 對韓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.2%

< 일본인투자 추이 >

	2017	2018.1분기	2018.2분기	2018.4월	2018.5월
일본인투자(백만 달러, %)	1,862 (90.1)	368 (135.9)	504 (37.0)	-	-
전체 외국인투자(백만 달러, %)	22,970 (7.8)	4,934 (-47.3)	10,820 (119.3)	-	-
일본의 對韓직접투자(억 엔, %)	4,112 (18.8)	993 (3.3)	-	316 (16.0)	393 (24.4)
일본의 해외직접투자(억 엔, %)	559,108 (-18.0)	203,157 (247.6)	-	55,655 (-54.7)	33,823 (-39.3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,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○ 도레이 BSF코리아 증설라인 준공

- 도레이 BSF코리아가 839억 엔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증설, 구미공장에서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분리막의 생산라인을 준공함
- 도레이 BSF코리아 측은 “생산라인 증설은 한국·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리튬이온전지용 분리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하고, 2020년까지 2,200억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더 늘릴 계획임 (연합뉴스, 2018.7.20.)

○ 참좋은넷, 1,000만 달러 협약 체결

- 도쿄에서 개최된 ‘한일경제교류대전 2018’과 연계한 ‘코리아 IT 엑스포 2018’에서 「참좋은넷」이 일본 도쿄 일렉트릭 디바이스(TED)와 1,000만 달러의 협약을 체결
- 이는 일본 TED(Tokyo Electron Device Limited)가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(IoT) 기반의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 온도, 동작센서 등을 통한 각종 다양한 IoT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했음 (이데일리, 2018.7.11.)

□ 인적교류

○ ‘18.6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3.5% 증가

- 6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35,293명으로 5월보다 3.5% 증가
- 특히 제주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수가 11,698명으로 전월대비 54.4%의 대폭 증가
-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

○ ‘18.6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 6.5% 증가

- 6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606,100명으로 5월보다 6.5% 증가
- 항공편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방일 프로모션 효과가 컸음

II. 이달의 일본경제

1. 경기·무역 동향

□ GDP,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되찾을 전망

- 일본 내각부가 6월 8일 발표한 2018년 1분기(1-3월기) GDP성장률 개정치는 전기 대비 -0.2%, 연율 환산으로 -0.6%, 2017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1.6%
- '18.1분기의 설비투자는 반도체관련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0.3% 증가한 반면, 민간 주택투자는 1.8% 감소
- 한편 GDP 전체의 60%를 점하는 민간소비는 0.1% 감소
- 실질성장률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.2%포인트의 마이너스
- 수출은 0.6% 증가,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외수의 기여도는 0.06%포인트의 플러스를 기록
- 그러나 앞으로 4-6월기에는 외수의 회복으로 경기가 다시 가속될 전망
 - 이토츠키 경제연구소(일본경제정보 2018년 5월호)에 의하면, 앞으로 일본경제는 미국발 무역마찰 격화와 북미관계의 불안이라고 하는 세계경제의 혼란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는다면,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되찾고, 설비투자는 확대를 계속, 개인소비가 서서히 회복될 것임
 - 이에 따라, 2018년 2분기에도 일본정부의 시산대로 연율 1.1%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임
- 그 결과 2018년도의 GDP성장률은 1.3%로, 2017년의 1.5%에서 약간 감속될 것이나,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확보, 디플레이션 탈출을 향해 접근할 것으로 보임
 - 다만 미중 무역마찰의 리스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경제에의 마이너스 영향으로 수출주도의 회복력은 약할 가능성이 있음

< 2018년 1분기 GDP성장을 내역 >

		2017	2017				2018p)
			1/4	2/4	3/4	4/4	1/4
GDP	전기비	1.7	0.7	0.5	0.5	0.1	-0.2
	연율환산	1.7	2.6	2.0	2.0	0.6	-0.6
개인소비		1.0	0.6	0.7	-0.7	0.3	-0.1
주택투자		2.7	1.1	0.9	-1.6	-2.7	-1.8
설비투자		2.9	0.4	0.9	1.0	0.7	0.3
정부소비		0.2	0.3	0.4	0.1	0.1	0.1
공공투자		1.2	0.0	4.7	-2.6	-0.4	-0.1
수출		6.7	2.1	-0.1	2.0	2.2	0.6
수입		3.4	1.6	1.8	-1.3	3.1	0.3

자료: 내각부, p)는 개정치(2차 속보치), GDP이외의 항목은 전기비 증가율

□ 완만한 경기회복세

-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
 - 수출과 생산활동에 더하여 개인소비도 회복경향을 보이고 있음
 - 앞으로도 고용·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,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다만, 5월의 경기동향지수는 전월대비 1.4포인트 하락한 116.1로 4개월 만에 하락
 - 자동차의 생산과 출하가 부진하여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한 것이 지수하락에 기여
 -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20개월 연속 경기가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 판단을 유지
- 5월의 실질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.9% 감소
 - 식료품과 의류 등 많은 품목에서 지출이 감소함
 - 그러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.6% 증가
-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5월 기계수주액은 전월 수주증가의 반동으로 전월비 3.7% 감소
 -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6.5% 증가, 석유·석탄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함
 - 「일본은행단판」(2018년 6월) 등에 의하면, 기업들이 설비부족감을 느껴 2018년도 전 산업 설비투자계획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5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.2% 감소
 - 자동차와 철강의 생산이 감소
- 5월의 완전실업율은 전월보다 0.3%포인트 낮은 2.2%로, 22년 만에 최저수준임
 - 유효구인배율도 전월보다 0.01포인트 높은 1.6으로 3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
 - 이는 구직자의 취업도 좋아지고 있지만 구인수가 구직자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으로, 특히 교육학습지원업 분야에서 신규 구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
- 6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8.7% 증가
 - 미국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10.4% 증가로 호조
 - 앞으로도 해외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이 지속될 될 전망
- 6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보다 0.1% 상승한 전년동월 대비 0.8% 상승
 - 유가상승에 따른 휘발유가격과 등유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전월비로는 0.0% 상승
 - 일본은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셈치고는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작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 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□ 무역수지 흑자 반전

- 6월 무역수지는 전월의 적자에서 7,214억 엔 흑자로 반전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2,802억 엔 적자에서 676억 엔 적자로 감소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3,407억 엔에서 5,719억 엔으로 확대
 - 수출의 증가가 수입의 감소를 수반한 것이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짐

- 6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12.7% 증가한 7조 524억 엔
 - 5대 수출품목 중 철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, 자동원동기의 수출 증가폭이 전월대비 21.1%로 가장 큼(지표 4)
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은 모두 증가한 가운데, EU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13.8%로 가장 큰 한편,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은 4.6%(지표 5)
- 6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8.7% 감소한 6조 9,016억 엔
 - 5대 수입 품목 모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의약품의 수입 감소폭이 -20.9%로 가장 큼(지표 6)
 -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대비 -12.9%로 가장 큰 한편,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은 -0.2%(지표 7)

< 2018년 6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 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 출	6.3	8.1	-7.3	7.1	6.7	12.7	40.1	6.2
수 입	6.9	14.0	11.3	6.3	2.5	-8.7	39.5	7.5
수 지	-0.6	182.9	-	0.7	66.5	-	0.6	-39.9

자료 : 재무성

- 6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10.3엔으로 전월대비 0.5% 엔저
 - 최근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투자가들의 리스크 선호가 계속되는데 더하여, 상대적으로 유망한 투자선인 미국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이 배경임
 - 對원화환율은 100엔당 993엔으로 1.2% 원저(엔고)
- 5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39.3% 감소한 3조 3,823억 엔
 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24.4% 감소한 393억 엔
- 5월의 경상수지는 전월보다 5.1% 증가한 1조 9,383억 엔
 - 무역수지가 적자로 흑자로 반전됐고,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 직접투자 수익이 크게 증가

□ 일본은행의 기업 체감경기 결정요인과 전망

- 일본의 경기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
 - 일본은행이 7월 2일 발표한 6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(단판)에서는 원료비용이 큰 부담이 되어 대기업제조업의 체감경기가 5년 6개월 만에 2분기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
-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장애물로서, 원료비용의 판매가격 전가, 과도한 설비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, 미국발 무역마찰의 행방 등 3가지 점이 부상하고 있음
- 현재 일본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점이 큼
 -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메이커는 유가상승이 코스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2019년 3월기에 4기만에 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되는 도쿠야마는 원료비용 상승이 고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염화비닐수지 등 화성품 사업에서는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가격의 상승이 50억 엔 정도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온다고 함.
 - 품질 면에서 차별화가 어려운 범용소재이기 때문에 코스트상승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움
- 이번 단판에서는 기업이 코스트 상승을 전가할 수 없는 구도가 보다 선명해짐
 - 구입가격이 상승한 기업의 비율에서 하락한 비율을 공제한 값(DI)은 대기업 제조업에서 30으로 전회 조사 시보다 4포인트 상승함
 - 반면 판매가격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에서 인하한 비율을 공제한 값은 5로 1포인트 상승에 그침
- 식품업계에서는 트럭운전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, 수송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나, 가고메는 소비자는 적정가격느낌을 의식하여 상품을 고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함
 - 상품에 부가가치를 얹히지 않으면 가격전가는 어렵다고 하는데, 동사와 아지노모토 등 5개사는 2019년 4월에 공동물류회사를 발족, 코스트를 억제하여 수익확보를 목표로 할 계획임

- 소매업계에서는 인터넷판매가 대두되고 있는데다, 드럭스토어도 식품가격의 인하로 집객력을 높이고 있으며 가격인상은 고객을 놓칠 따름임
 - 이러한 구도도 가격전가가 어려운 하나의 요인임
- 그러나 비제조업 중소기업에서는 가격전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
 - 판매가격의 DI는 3포인트 상승하여 4로,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
 - 일각에서는 노동비용의 상승 때문에 가격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
- 원유는 OPEC의 협조감산으로 재고가 줄어 가격을 인상하기 쉬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
- 인건비도 일손부족이 원인인 만큼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음
 - 코스트 상승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앞으로 체감경기를 좌우 할 것임

2. 경제정책

□ 일본정부의 성장전략 추진 부진과 과제

- 일본정부가 2016년도 성장전략에서 목표로 한 중요 항목 중, 2018년 1월 시점에서 40%가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
 - 고용과 방일관광객 증가 등의 성과가 보인 항목도 있으나, 농업개혁과 서비스업의 생산성향상 등은 실행되지 못한 것들이 현저함
 - 일본정부는 성장전략(일본재흥전략)에 제시한 중요업적평가지표(KPI)의 달성정도를 최신데이터로 평가, 그 결과를 미래투자회의에서 공표하고 성장전략 논의의 토대로 삼고 있음
- 가장 부진한 것이 농림수산업의 개혁임
 - 농지의 지적, 농업법인의 증가, 6차산업화의 규모 확대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목표에 이르지 못했음
 - 일본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서 TPP의 조기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,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늦어지고 있음

-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도 목표달성에서 멀어지고 있음
 - 노동생산성은 2020년에 2%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에 1.3%의 상승률을 보인 후, 2016년에는 0.2%로 떨어짐
 - 이는 경영의 효율화와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,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물가침체에도 이어지고 있음
- 방일외국인(인바운드)여행자를 2020년에 4,000만 명으로 하는 목표는 달성속도가 계획치를 상회하고 있음
 - 그러나 방일외국인의 여행소비액을 2020년에 8조 엔까지 늘리는 목표는 2017년 시점의 계획치에 8,000억 엔 부족한 실정임
 - 이에 체험과 여가에 대한 소비확대나, 야간 엔터테인먼트의 충실 등이 과제로 되고 있음
- 민간연구소의 한 경제전문가는, 성장전략이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으로써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쉬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, 그 위에서 지금과 같은 환경을 살려 잠재적인 성장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없이는 숨이 긴 성장을 실현할 수 없다고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음
 - 현재 일본경제는 2%의 물가상승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,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, 고용사정도 호전, 경기는 숨이 긴 확대를 계속하고 있음
- 일본정부는 2018년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인 '호네부토(骨太)방침에서 성장전략이 이제까지는 정부예산을 사용한 관주도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의한 자율적인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
- 아베 정권이 2012년 말 출범 때 제시한 3개의 화살 중, 민간투자를 환기하고 민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는 성장전략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임

□ 일본-EU EPA, 2019년 초 발효

- 일본과 EU가 7월 18일 경제연휴협정(EPA)에 서명함. 쌍방은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 절차를 마치고 2019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2019년 3월까지, 일본과 EU는 EPA를 발효시킬 방침임

< 일본-EU EPA에 의한 시장개방도 >

	품목	현행 관세율	발효후
수입	와인	15% 또는 30엔/kg	즉시 제로
	돈육	저가육 : 402엔/kg 고가육 : 4.3%	10년 내 인하
	파스타	30엔/kg	11년 후 제로
	초코릿	10%	11년 후 제로
	치즈	29.8%	최대 3.1만 톤의 수입한도를 설정, 한도 내 관세는 16년 후 제로
	가방, 가죽신발 등	최고 30%	11년, 또는 16년 후 제로
수출	자동차	10%	8년 후 제로
	자동차 부품	3-5%	92%의 품목에서 즉시 제로
	전기기기	최고 14%	91%의 품목에서 즉시 제로
	일본주(사케)	0.77유로, 약10엔/리터	즉시 제로

자료 : 일본경제신문(2018.7.18.)

- 일본과 EU의 EPA가 발효되면, 세계 GDP의 역 30%, 무역량의 약 40%를 점하는 자유무역권, 즉 세계 최대급의 FTA가 탄생되게 됨
- 관세철폐율(품목 수)는 일본 측이 94%, EU 측이 99%에 달해, TPP 정도의 높은 자유화수준을 확보하게 됨
 - 비관세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이나 기업지배,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
- 일본은 자동차와 기계제품, EU는 와인과 치즈 등의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됨
- EPA가 발효되면 EU측이 일본제 승용차에 대한 관세(10%)가 8년째에 제로가 됨
 - 일본산 자동차부품도 전체의 92%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됨
 - 일본 측은 EU산 와인에 관세를 제로로 하고 경쟁력이 높은 유럽산 소프트치즈는 低관세의 수입한도를 설정, 발효 후 16년째에 관세가 철폐
- 일본정부는 일본-EU EPA가 일본 GDP의 약 1%(약 5조 엔)을 끌어올리고 약 29만 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시산함
 - 특히 관세철폐가 일본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2007년 칠레와의 EPA가 발효된 후, 칠레산 와인의 수입량이 10년간 5배나 증가했음

3. 기업전략

□ 일본기업, 소형위성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

- 일본의 캐논전자와 IHI에어로 스페이스 등이 공동출자한 로켓 기획회사가 증자를 실시하고 사업화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함
 - 이들 기업은 2021년도에 위성로켓 발사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로켓 발사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코스트 절감이 진행되고 있음
 - 특히 수요확대가 크게 예상되는 소형로켓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신흥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
- 일본에서도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가 2018년 6월 30일 실험에 실패했으나 개발을 계속할 방침으로 국내외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
- 이제까지 로켓 개발이나 발사는 정부계 기관이 담당해왔음
 - 선진국에서는 노하우가 어느정도 확립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민간에게 이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
 - 로켓을 한번 발사하는데 수십 억 엔에서 백억 엔 이상 드는 중대형의 대형 로켓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추진한 반면, 수십억정도로 끝나는 소형로켓에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음
- 캐논전자와 IHI에어로, 시미즈 건설,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17년 8월에 로켓 기획 회사를 설립했음
 - 이번 4개사에 대한 제3자 할당 증자로 자본금을 1억 엔에서 14억 엔으로 늘림
 - 증자 후 출자비율은 캐논전자가 50%, 회사명은 스페이스원으로 변경함
- 이렇게 소형로켓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형위성의 발사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
 - 농장이나 어장을 촬영하여 생산자에게 데이터를 제공, 생산성효율 향상에 이어지는 새로운 사업이 탄생됨
 - 컨테이너의 화물움직임을 관찰하면 경제상황도 파악할 수 있음
 - 이제까지 는 방위 및 우주과학에 사용하는 대형위성이 중심이었음

- 미국의 조사기업인 스페이스웍스에 의하면 소형위성의 발사수요는 2023년에 460기 분량으로 2016년의 4.6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 - 기존 대형로켓은 한번에 100기 이상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점도 있어, 고객의 주문이 모아질 때까지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많음
 - 그러나 소형에서는 위성 1기라도 채산이 맞음으로 스페이스웍스는 2020년대 중반에 연간 20기를 발사, 계약 후 1년 내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- 현재 소형 로켓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고 있음
 - 미국의 로켓라보는 2018년 1월 소형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에 성공
 - 2006년에 창업,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유니콘 기업임
 - 중국도 영일공간(零壹空間)이 2018년 5월에 실험기 발사에 성공, 2015에 창업한 동사는 중국 국내 유력 VC 및 중경시정부와 제휴하는 등 풍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
- 일본기업으로는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가 지상 100km의 우주 공간을 목표로 한 관측로켓 「MOMO」를 개발하고 있음
 - 2017년 7월에 제 1호기가 지상 20킬로미터의 높이까지 비행,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이나 2018년 6월 30일 2호기 발사는 실패함
- 세계적으로는 대형 로켓의 저가경쟁도 격화되고 있음
 - 미국 스페이스X는 한번 발사하는데 사용했던 로켓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기술도 개발
 - 유럽의 알리언스, JAXA와의 공동개발도 계속하고 있는 미쯔비시중공업은 코스트 반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대형, 소형을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로켓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, 신뢰성에 더하여 고객인 위성사업자가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임

□ 일본기업의 해외 M&A 사상 최고

- 일본기업의 해외기업에 대한 M&A가 확대되고 있음
 - 2018년 1-6월중 해외 M&A액은 12조 엔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으로서는 과거 최고임

- 건수도 340건으로 약 10% 증가, 최고치를 기록함. 해외에서 성장기회를 찾는 움직임이 폭넓은 업종에 확대되고 있음
- 금융완화를 배경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쉬운 점도 배경에 있음
- M&A 조사기관인 레코프데이터에 의하면, 1-6월중 일본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매수는 11조 7,361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.2배로 확대됨
- 다케다약품공업이 아일랜드의 대형 제약회사인 샤이어를 매수하는데 약 7조 엔을 투입했던 것이 큼
- 동 안건을 제외하더라도 매수액은 지금까지의 최고였던 2015년에 다음가는 과거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확대됨
- 소프트뱅크에 의한 미국 라이드셰어 최대 업체인 우버테크놀로지에 대한 출자 및 소니의 EMI뮤직퍼브리싱 운영회사주식의 취득 등 수천억엔 규모의 안건이 줄을 이음
-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현저함
- 도요타 자동차가 동남아시아의 라이드셰어, 그라브에의 출자를 결정하는가 하면, 리쿠르트홀딩스는 미국 구인 사이트 그라스도어를 매수함
- 인공지능(AI)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IT기업에 대한 M&A도 증가하고 있음
- 일본기업은 자전주의가 강하다고 하나, 지금은 M&A야말로 경영전략상 당연한 선택지의 하나라는 지적임
- 일본기업이 관여한 2018년 1-6월의 M&A는 건수가 33% 증가한 1,798건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함

□ 미국의 투자촉진요인에 힘입어 일본기업의 대미투자 호조

- 일본기업의 對美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
-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1년간 신규투자안건은 13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0% 증가함
- 미국경기의 호조와 대형 감세가 투자촉진요인으로 작용, 부동산이나 자동차 관련 대형안건이 두드러짐

- 고용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미국이 유치공세를 강화한 것도 일조가 되었으나, 무역마찰이 격화하면 투자계획의 실현이 늦어질 우려도 있다고 함
- 도요타 자동차와 마쓰다 신공장까지는 트럭으로 약 2시간 거리임
- 2018년 5월 기업유치를 위해 방일한 미시시피주의 경제개발장관은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의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기업관계자들에게 호소함
- 염두에 있었던 것은 인접한 알라바마주에 건설예정인 자동차 공장으로, 부품메이커들의 진출에 기대를 걸고 있었음
- 이러한 주와 도시 등 미국 지방정부관계자들의 방일은 2018년 1-5월중 20건에 달함
- 이는 통년으로는 24건이었던 2017년을 상회하는 기세로 나아가 7건의 방일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고, 배경에 있는 것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 호조임
-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FDI마켓의 집계에 의하면 2017년,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본기업이 계획 및 실행한 직접투자안건은 130억 달러로 전년동기(76억 달러)에 비해 크게 증가함
- 건수는 159건에서 142건으로 줄었으나 미쓰이부동산이 참여한 뉴욕 맨하탄의 대규모 복합개발, 텐스의 테네시공장 확장 등 대형안건이 견인함
-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2017년말 일본의 대미직접투자잔고는 전년대비 4.5% 증가한 55조 엔으로 과거최대임
- 또 미국 상무성에 의하면 2017년 일본의 對美투자실행액(M&A포함)은 438억 달러로 캐나다에 이어 2위
- 한편, 트럼프의 정책에는 불투명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임
- 일본 JETRO에 의하면 일본기업은 현지에서의 일손부족에 더하여 엄격해진 비자취득 등을 우려하는 외에, 자동차부품의 원산지규칙을 둘러싼 혼란도 발생하고 있음
- 또 트럼프 정권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미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, 리스크 회피를 위해 일본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보류할 우려도 있다고 함. KJCF

III. KJCF&KJE News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사업 및 행사 개최 결과

2018 일본 모노즈쿠리 IoT 연수

일시 : 2018년 7월 2~5일

장소 : 일본 나고야

개요 : 일본의 모노즈쿠리 IoT 활용 현황 파악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인더스트리 4.0 제조혁신 방향성을 제시하여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의 필요성 및 인식을 제고



한국 청년인재채용 설명회&토론회

일시 : 2018년 7월 5일 / 7월 6일

장소 : 일본 기후 / 오사카

개요 : 한국 청년인재채용에 대한 정보(한국 인재의 우수성, 채용절차, 채용사례)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

규모 : 각 10사 내외



제조혁신으로 경쟁력 UP! 모노즈쿠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세미나

일시 : 2018년 7월 13일

장소 : 대구광역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

강연 : 제대로 된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현장의 모노즈쿠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(1)모노즈쿠리의 이해, (2)모노즈쿠리와 Smart Factory, (3)제조혁신 기반 스마트공장 추진현황에 대한 강연을 실시

규모 : 약 100명



2018년도 제조혁신 인스트럭터 양성 연수 (일본 기본과정)

일시 : 2018년 7월 15~25일

장소 : 일본 도쿄

개요 : 일본 제조업 부활의 원동력인 모노즈쿠리 노하우를 체계화시킨 도쿄대 후지모토 교수의 모노즈쿠리 이론교육 및 현장개선회 지도방법 훈련

규모 : 10명



□ 한일재단 모집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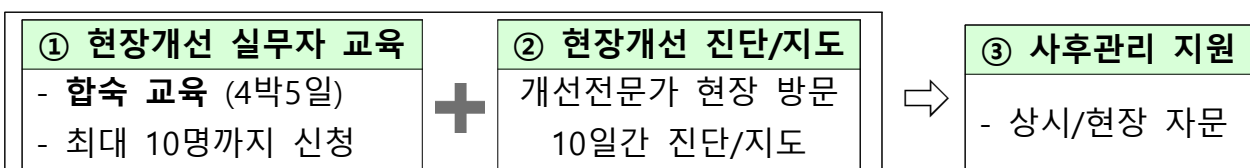
1) 2019년도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상반기(1~7월) 참가신청 모집

- 일본 우수퇴직기술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 실시
 - 지원 분야 : 제조업 생산기술 전 분야
 - 지원 내용 : 자문료, 체재비, 항공료, 통역료의 일부
- 대상 : 중견·중소기업(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, S/W 업체 포함) 약 50개사
- 매칭상담회
 - 일시 : 2018년 9월 19일(수) 09:00~18:00
 - 장소 :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(303, 304호)
 - 형태 : 일본 기술자와 1:1 상담
- 신청기간 : 2018.7.31.(화) 18:00까지 서류를 메일로 송부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486 참조

2) 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

- 목적 :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
- 내용 : 뿌리기업의 생산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『① 현장개선 실무자 교육』 과 뿌리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『② 현장개선 진단·지도』 『③ 사후관리 지원』 으로 구성



- 사업 특징 :
 - 현장작업자 교육 후 향후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활동 가능
 ※코스트 다운, 품질개선, 불량률 감소, 공정흐름개선, 물류개선 효과
 - 모노즈쿠리(통합적 관리)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구축 기반조성
- 신청기간 : 2018.8.10.(화) 18:00까지 이메일 도착분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489 참조

IV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- 『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4)-긴키공업』 2018-07-24
- 『교훈을 얻고 재도약_스미토모금속광산』 2018-07-17
- 『유니클로와 다르다_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』 2018-07-12
- 『인터넷TV에 도전_사이버 에이전트』 2018-07-10
- 『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3)_스기야스』 2018-07-05
- 『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2)_후지킨』 2018-07-03
- 『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1)_미즈키』 2018-06-28
- 『일본의 지역경제견인사업과 지역미래견인기업』 2018-06-26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일본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조사』 경제산업성, 2018년 7월 21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354.pdf
- 『2050년을 향한 에너지관련 기술에 관한 조사』 경제산업성, 2018년 7월 21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346.pdf
- 『재생가능 에너지 도입확대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사업 등에 관한 조사』 경제산업성, 2018년 7월 19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336.pdf
- 『아프리카 진출에 있어서 현지·제3국기업과의 제휴 가능성:지역분석리포트』 JETRO, 2018년 7월 14일
<https://www.jetro.go.jp/biz/areareports/special/2018/0701/65129b0df741caeb.html>
- 『관광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사』 경제산업성, 2018년 7월 14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339.pdf
- 『통상백서 2018』 경제산업성, 2018년 7월 11일
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tshaku2018/index.html>
- 『재생가능에너지 사업지원 가이드북(2018년판)』 일본자원에너지청, 2018년 7월 10일
http://www.enecho.meti.go.jp/category/saving_and_new/saiene/data/guidebook_h30.pdf
- 『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』 일본내각부, 2018년 7월 10일
http://www5.cao.go.jp/keizai-shimon/kaigi/minutes/2018/0709/shiryo_05.pdf
- 『일본재정의 현상과 과제』 경제산업성, 2018년 7월 4일
<http://www.camri.or.jp/files/libs/1115/201807030943053026.pdf>

V. 한일경제지표

1) 2018년 6월 對日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2,528	15.8	2.0	2,602	10.7	2.9	15,243	15.4
1	광물성연료	284	12.9	-14.0	415	95.2	46.1	2,353	64.3
2	철강제품	370	10.2	7.6	325	-5.9	-12.2	2,065	6.0
3	석유화학제품	204	42.3	-3.8	207	53.3	1.5	1,116	33.9
4	정밀화학제품	179	53.8	13.3	173	4.9	-3.4	992	32.8
5	전자부품	164	15.5	7.2	169	8.6	3.0	933	8.7
6	산업용전자제품	117	13.1	20.6	132	-8.0	12.8	760	3.0
7	수송기계	120	2.3	-5.5	120	-13.2	0.0	719	-11.7
8	농산물	99	18.5	4.2	96	0.4	-3.0	560	9.0
9	기계요소공구· 금형	92	-3.0	13.6	86	-13.7	-6.5	527	-4.0
10	기초산업기계	77	12.9	7.6	86	7.7	11.7	457	11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) 2018년 6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4,408	0.6	-10.6	4,443	-6.9	0.8	28,013	3.3
1	정밀기계	644	-8.2	-10.7	506	-38.6	-21.4	4,160	0.4
2	철강제품	562	16.7	-6.7	609	14.8	8.4	3,507	15.5
3	전자부품	450	-10.2	-14.2	533	-1.3	18.4	3,174	1.7
4	정밀화학제품	380	22.4	-14.3	379	18.3	-0.3	2,360	18.6
5	석유화학제품	310	-18.8	-9.6	250	-23.9	-19.4	1,974	-15.4
6	산업용전자제품	267	17.7	-6.3	292	1.8	9.4	1,647	12.1
7	기초산업기계	212	-12.1	-15.5	248	-14.3	17.0	1,445	-11.2
8	수송기계	206	-9.5	-15.2	200	-22.4	-2.9	1,339	5.0
9	플라스틱제품	183	-0.8	-9.0	181	-7.8	-1.1	1,107	-2.3
10	산업기계	168	-16.0	-14.7	201	3.6	19.6	1,076	-1.6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7	2017		2018			
			3/4	4/4	1/4	4월	5월	6월
GDP증가율(실질,연율,%)		1.7	2.0	1.6	-0.6p)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-	117.5	116.1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4.5	4.2	4.6	-	0.5	-0.2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-0.3	0.0	0.5	-	-1.3	-3.9	-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	-1.1	2.8	0.3	-	10.1	-3.7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0.1	0.3	-	0.2	0.2	0.0
	전년비	0.5	0.6	0.9	-	0.7	0.7	0.8
실업률(%)		2.8	2.8	2.7	-	2.5	2.2	-
수출액(조엔)		78.3	19.6	20.9	6.7	6.8	6.3	7.1
수입액(조엔)		75.4	18.4	20.1	6.7	6.2	6.9	6.3
무역수지(조엔)		2.9	1.2	0.8	-0.02	0.6	-0.6	0.7
경상수지(조엔)		22.0	7.0	4.3	5.8	1.8	1.9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55.3	11.5	13.1	20.3	5.6	3.4	-
환율	달러	112.1	111.0	113.0	108.1	107.4	109.7	110.3
	원화(100엔)	1,009	1,020.3	1,001	990	993	981	993
금리(10년물,%)		0.052	0.046	0.052	0.059	0.050	0.030	0.030
주가(닛케이,엔)		20,209	19,880	22,187	22,367	21,869	22,590	22,563

주: p)는 개정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4) 2018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엔,%)

순위	품목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자동차	8,629	7.1	-19.4	10,344	-1.0	19.9	60,223	8.0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215	8.4	-5.7	3,588	9.0	11.6	19,767	4.6
3	자동차부품	3,086	10.4	-9.0	3,512	8.4	13.8	19,593	3.9
4	철강	2,972	7.8	13.5	2,962	7.2	-0.3	17,042	4.3
5	원동기	2,121	4.9	-15.0	2,568	15.4	21.1	14,387	7.7

자료 : 일본 재무성

5) 2018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2,723	13.9	-3.4	13,859	-0.6	8.9	76,553	10.4
2	미국	11,459	5.8	-11.0	12,920	-0.9	12.7	74,230	2.4
3	ASEAN	9,944	11.2	-1.8	10,847	13.4	9.1	61,516	9.0
4	EU	6,972	0.7	-15.0	7,937	9.3	13.8	46,118	8.9
5	한국	4,631	-0.6	-3.8	4,845	-4.1	4.6	29,325	-0.8
6	대만	3,750	12.5	-2.1	3,964	5.9	5.7	22,862	3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6) 2018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6,794	28.6	2.3	5,736	20.2	-15.6	40,125	13.3
2	액화천연가스	3,502	13.1	18.4	3,097	4.6	-11.6	22,131	9.8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330	10.9	8.5	2,266	-4.6	-2.7	13,412	1.3
4	의류·동부속품	2,329	13.4	-7.3	2,171	9.1	-6.8	14,730	3.4
5	의약품	2,694	17.8	25.2	2,133	-11.2	-20.9	14,429	8.1

자료 : 일본 재무성

7) 2018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5월			2018.6월			2018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5,525	8.6	6.1	14,536	-0.6	-6.4	90,653	2.7
2	ASEAN	10,266	9.2	15.4	9,834	2.5	-3.8	60,460	7.4
3	EU	8,210	12.0	14.6	7,646	5.2	-6.9	46,742	11.2
4	미국	8,052	19.9	20.1	7,017	-2.1	-12.9	42,746	5.9
5	호주	4,171	21.1	7.7	3,676	-9.1	-11.9	23,637	9.0
7	한국	2,911	12.7	6.2	2,906	14.8	-0.2	17,509	14.5

자료 : 일본 재무성